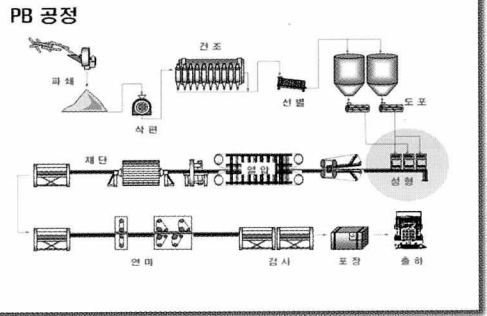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 개요 _ 대성목재공업은 128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목질자재 전문기업으로 3교대의 24시간 풀가동하며 보드(Particle Board)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과거 재해를 볼 때 노령화에 따른 인적원인이 대부분으로 기계가동 중에 청소 및 교체작업시 협착 등의 위험을 비롯해 지붕공사시 추락위험, 분쇄시 금속 이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등의 공정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2. 안전점검의 개요 _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안전점검이었으나 2003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200여 건에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개선조치하는 안전활동이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가능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적절한 조치·보완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점검이다.

3. 안전점검 시행 _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의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과 분기 1회 실시하는 노사합동안전점검이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황영균 안전담당 과장을 비롯해 시설지원팀 점검반 3명으로 구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 곳곳을 측정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노사합동안전점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정기안전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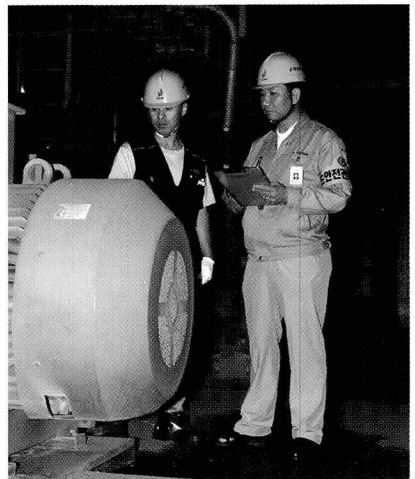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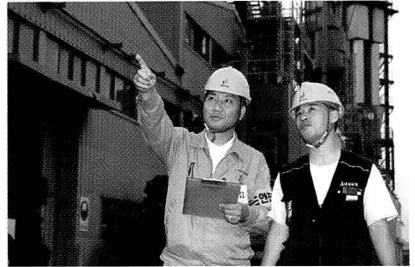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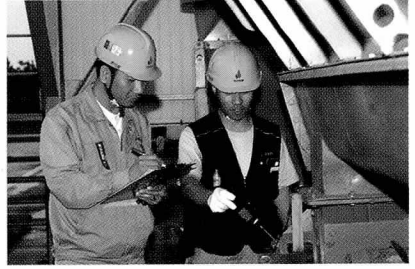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는 동화홀딩스주식회사의 자회사로 1936년 6월에 설립되었고, 92년 Particle Board 공정을 가동하면서 연간 평균 250,000㎡, 일평균 700㎡를 생산하는 목질자재 전문 기업이다. 안전점검을 기반으로 동종업계에서 최초로 무재해 기원을 달성하고 있는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찾았다.


4. 안전점검 실적_ 안전은 곧

실천이라고 했다.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의 안전점검은 2000년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안전활동이다. 그러나 활동이 미진해지면서 실적 또한 저조했다. 이런 안전점검이 2003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첫 달에 사업장의 불안진요소 148건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누적관리로 도출건수가 감소되었다. 금년 현재 113건의 불안진사항이 도출되었고, 이 중 72건이 조치 완료되는 등 개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는 무재해 180일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목재가공업에서는 사소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과 국내 동종업종에서 180일 무재해를 달성한 기업이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가 유일한 것이어서 무재해 180일이 갖는 의미는 크다. 안전점검 실적은 도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관리를 함으로써 100% 개선조치를 지향한다. 이로써 과거 매년 1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면서 금년에 무재해 180일을 달성하였고, 무재해 360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생활화는 계속될 것이다.

5. 맺음말_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위한 의지와 실천이다. 지금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도 무재해를 위한 높은 의지와 안전점검 생활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점검에서 도출된 사항은 시설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외부에 요청을 구해서라도 100% 개선 조치할 것을 강조하는 김일환 대표이사도 무재해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염원은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자체공사 및 외부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안전허가제, 근무조별 안전교육 및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이 있고, 제안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만드는 중요한 안전활동들이다. 오는 8월이면 화재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화재



발생을 원천 봉쇄하는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는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목재공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안전 역사를 세운다. 

〈최종덕 기자〉